

京小紋



採用被稱為「小紋」的型染技法、為友禪染的一種、江戶時代因使用於武士禮服上而開始廣泛流傳。明治初期因應大眾喜好的變化以及化學染料的引進、由單色進化至彩色、並與友禪染相互刺激而使技法更進步。相較於友禪的艷麗璀璨、京小紋樸素沉著的色調為其特徵。

江戸時代 1603-1868
明治時代 1868-1912

製作：京都市

京小紋



使用名为“小纹”的型染（用模具染色）工艺的友禅染、以江户时代武士礼服为发端得到普及。从明治初期开始、随着喜好的变化和化学染料的进口、渐渐从单色演变成彩色、并与友禅染相互激发、工艺水平不断提升。与图案华丽的友禅染相比、沉稳而质朴是它的特征。

江戸時代 1603-1868
明治時代 1868-1912

制作：京都市

교코몬 (염색의 한 기법)



코몬이라고 하는 형염 기법을 이용한 유젠염색으로, 에도시대의 무사들이 입는 예복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. 메이지시대 초기부터 취향이 변하면서 화학염료가 외국에서 수입됨에 따라 단색에서 다채로운 색으로 변화하면서 유젠염색과 서로 겨루면서 그 기법을 향상시켰다. 색과 무늬도 유젠의 화려함에 비해 차분한 느낌이 특징이다.

에도시대 1603-1868
메이지 시대 1868-1912

교토시 제작

Kyo-komon (Komon dyeing)



Komon is a type of *yuzen* fabric dyeing that uses stencil techniques which was used on the *kamishimo* formal clothing of samurai in the Edo period. With changes in taste and the introduction of chemical dyes in the early Meiji period, *komon* dyed textiles went from being single-colored to multicolored, as techniques improved in competition with standard *yuzen* dyeing. The colors and patterns tend to be more subdued in comparison to the vibrant colors of standard *yuzen*.

Edo period 1603-1868
Meiji period 1868-1912

Produced by City of Kyoto